

어린 도공 (陶工)의 유작 (遺作)

강 위 수

내

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는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토기(土器) 한 점이 있다.

이것은 소형 고배(高杯) 양식을 한 신라토기(新羅土器)로 아무렇게나 주물러 만든 형태로 본다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이 토기를 입수한 것은 꽤 오래 전으로 경북 상주지방에서 우연히 만난 통칭 옛장수로 불리는 고물수집 행상으로부터다.

당시 못쓰게 된 낫그릇과 양은제품이 대부분이던 그의 수집품 중에는 색다르게도 깨진 신라 토기 몇점이 있었고, 그 중에 이 물건이 끼어 있었다. 질흙을 주물러서 만든 술잔 형태의 이 토기는 다섯 여섯 살 정도의 어린이의 솜씨인 듯 서툴고 천진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때 내가 그 토기를 집어들고 관심을 보이자 남루한 차림의 옛장수가 말했다. “그거 모양새는 막 생겨 먹었어도 땅속에서 나온 아주 오래된 겁니다.” 거기 있던 다른 토기와 색상과 태토(胎土)의 질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곳에서 출토된 토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당시 최고급 담배였던 ‘아리랑’ 두 갑에 해당하는 돈을 치르고 그것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보잘것 없는 토기는 값으로 환가한다면 이십여 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도 별것이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토기에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소중히 간직해 오고 있다.

나

는 이 토기를 대할 때면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의 상황을 유추하며 천 몇백년 전의 세월을 거슬러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한다.

어린이의 솜씨가 분명한 이 토기를 만든 주인공은 도공의 아들이었을까 …… .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서툰 물건이 부장품(副葬品)으로 묻혀지게 되었을까 …… .

우리나라 역사유물 중에서 신라토기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그 당시의 장례의식 관습때문이라고 한다. 지체있는 신라인들은 죽으면 다수의 토기 용기들을 부장품으로 무덤에 넣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술잔(高杯),항아리, 그릇 받침, 인형(土偶) 같은 신라시대 분묘에서 흔히 출토되는 토기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지각변동이나 출토과정에서 깨진 것이 많으나, 실생활에 사용한 흔적이 없는 신제품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섭씨 1000도 이내의 저온에서 구워진 그시대 질그릇들은 강도가 떨어지는 연질토기여서 조금이라도 실생활에 이용을 했다면 닳고 이빠지고 금간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당시 신라인들은 사자(死者)의 무덤에 넣어주기 위한 의식품(儀式品)으로 이들 토기들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고관대작이나 지체있는 신라인들은 부장품(副葬品)으로 쓸 용기들을 별도로 주문,제조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가 장난삼아 만든 이 치졸한 물건이 어떻게 신성시하는 외례품으로 무덤에 넣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의문이 생겨지지 않을 수 없다.

천

오백여년 전, 그 옛날 신라에 예속된 상주고를 근처에는 가마골(용기마을)이 있었다.

신라인인 젊은 도공은 주문받은 부장품용 토기그릇을 만들기 위해 가마옆에 차려진 노천 공방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태도로 쓸 반죽된 질흙(모래와 불순물을 걸러낸 도기원료흙)을 물레에 걸어서 그릇의 성형작업을 하고 있는 도공 옆에서는, 그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한 줌 떼어준 질흙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때는 춘궁기가 시작되는 봄이었고 외딴 가마골 주변에는 진달래 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이즈, 고려때 도공의 사회적 신분이 팔시받는 천민이었던 것처럼, 신라인 도공 역시 대우받는 계층은 못되었다. 나물죽으로 아침을 때운 가난한 도공의 아들은 가마근처에 핀 진달래 꽃잎을 따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일하는 아버지옆에서 와서 놀고 있는 중이었다.

도공이 만들고 있는 것은 고배(高杯, 긴 받침대가 부착된 신라토기 양식의 술잔)였다. 소년은 고사리같은 작은 손으로 질흙을 주물러 아버지와 같은 그릇을 만드는 장난에 열중하고 있었다. 도공이 작업을 완료하고 허리를 폈을 때, 그는 아들이 만든 작품을 발견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애비가 만든 고배를 흉내낸 모양인데 도무지 비슷하지도 않은 엉터리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공은 그러한 아들이 귀여웠다. 자신도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늘

가마와 공방 근처를 놀이터 삼아 천직을 익혀가는 아들이 대견스러웠다.

도공은 성형된 그릇을 굽기 위해 가마에 넣을 때 아들의 이 우스꽝스러운 작품도 한 옆에 끼워준다. 이렇게 하여 아들의 서툰 첫 작품이 신라토기로 태어나는 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얼마 후에 도공에게는 큰 불행이 찾아온다. 가업을 이어갈 아들이 갑자기 요사(夭死)하는 변을 당한 것이다.

천연두(天然痘)나 홍역같은 역병(疫病)이 돌았을까, 아니면 산짐승에 의해 해를 입은 것일까……. 아들의 죽음은 도공에게 큰 슬픔을 남겨 주었고, 거적에 말아 아들의 시신을 매장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 아들의 작품인 그 유품(遺品)을 함께 매장해 준다.

무릇 생을 지닌 모든 것이 그러하듯, 소년의 육신은 얼마 되지 않아 흔적도 없이 흙에 동화되고, 그의 유작(토기)만이 땅속에 남아 천 오백여 년 잠자다가 후세인(도굴꾼)에 의해 속세(俗世)로 들어내지게 된 것이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토기 한 점, 나는 이것을 대할 때마다 그 서툰 투박한 솜씨에서 때문지 않은 소년의 천진성을 음미하게 되고, 이 토기의 주인인 어린 영혼에 대한 안스러움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이다. ♣

약력 · 강 위 수

소설가
서울농협지점장

